

동물/보/호/지

여름호 2008. 9

함께 나누는 삶

No.2



개식용

STOP!!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문화캠페인 _ 2
공공장소에 외출할 때에는...

입양해주세요
어린 아옹이들의 가족찾기 프로젝트

Animal Watch
폭력을 기반으로 한
개 식용 산업

Animal Photography
사진으로 보는 개 농장

세상읽기
우리 사회의 어정병한 이중적 잣대

현장에서
개 식용화 반대 캠페인을 마치며



CONTENTS

- 1 **여는글** | 우리가 준비하고 나서야 사회가 변하지요.
- 2 **견생역전** | 별처럼 반짝반짝 내 이름은 요다!
- 4 **반려동물문화캠페인 2** | 공공장소에 외출할 때에는...
- 5 **동물보호법 FAQ** | 옆집에서 매일 개를 때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6 **입양해주세요** | 어린 아옹이들의 가족찾기 프로젝트
- 8 **이럴땐 어떡해요**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어요"
- 9 **Reviwe** | 원령공주(모노노케 히메)
- 10 **Animal Photography** | 사진으로 보는 개 농장
- 12 **Animal Watch** | 폭력을 기반으로 한 개 식용 산업
- 14 **세상읽기** | 우리 사회의 어정쩡한 이중적 잣대
- 16 **현장에서** | 개 식용화 반대 캠페인을 마치며
- 18 **Live on vegetables** | 든든한 채식버거 만들기
- 19 **Story with animal** | 풍세와의 아름다웠던 지하철 여행을 추억하며...
- 20 **활동소식** | 2008년 6월 ~ 8월
- 22 **포토행당뉴스**
- 23 **활동가 소개** | 윤정임 간사 / 편집후기
- 24 **후원에 주세요**



우리가 준비하고 나서야 사회가 변하지요.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 한국동물복지협회 대표

“그럼 소와 돼지도 먹지 말아야지.”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사람이건 개고기가 언급되면 대개 가장 먼저 하는 말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지적 수준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만났을 때, 조금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지없이 그 기대가 무너지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개 도살의 잔혹성을 설명해 주면 그 비인도적 행위의 부당성을 수긍하는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제 희망사항일 뿐이고 기대감은 곧 사라지고 대화의 장벽부터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살펴볼 때려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져, 간혹 그 사람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시비조로 반문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소, 돼지도 먹지 말자고요? 다 잘 먹자고요?’

이쯤 되면 ‘그런 합법화시켜서 인도적으로 죽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반문도 나오겠지요? 하지만 그런 기대는 허상일 뿐,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제게 5분만 시간을 준다면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 거기까지는 들으려 하지 않거나 건성으로 듣거나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1차 숙제는 여기에 있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여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주제로 채택하게 할 수 있는 건가입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해 이 숙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옵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 속에서 참혹하게 죽어나간 수많은 전공들을 그냥 잊고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책임감으로 강하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이번 호엔 가장 많은 수의 개들이 희생당하는 여름 계절의 흔적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저는 2006년부터 매년 여름이면 개 도살 현장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느낀 생생한 모습들을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 많은 분들이 이 현실을 인식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모색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지요.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현장에서의 일은 극도의 자기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번 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무장하고, 좀 더 용기 내어 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데에 적극적으로 일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별처럼 반짝반짝 내 이름은 요다!

윤 정 일 | 동물자유연대 · 한국동물복지협회 선임간사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08년 1월 도로 한복판-, 운전중 하고 지나가시던 한 회원님 눈에 시커먼 돌멩이 같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게 뭘까 무심히 지나치시다 혹시 죽은 고양이는 아닐까 염려되어 차를 세우고 다가갔더니, 그것은 온몸의 털이 마치 축구공처럼 딱딱하게 뭉쳐 가늘게 밀고 있는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였습니다.

몸을 바닥에 붙인 채 두려움에 떨며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던 가여운 그 강아지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돌멩이 같이 엉킨 털을 잘라내 보니 얼마나 굵었는지 등뼈가 툭 튀어나오고 허리도 한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후 동물자유연대로 온 강아지는 그야말로 귀만 커다란 스타워즈에 나오는 요다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의 이름은 요다가 됐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요다와 눈도장만 찍고 안전한 곳에 놓아두고 점심을 먹고 왔는데 내려놓은 모습 그대로 석고상처럼 굳어 있는 요다의 모습을 보니 어찌나 서글프던지...

몇날 며칠을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사료도 직접 손으로 먹여 주어야만 눈치를 보다 겨우 먹던 소심한 녀석.

이 녀석 요다가 사무실에 온 지 10일 만에 김리은 회원님 댁으로 가기 전까지는 눈치 보기 바쁘고 너무나 수줍어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입양 후 지난 5월 입양동물의 날 행사에서 완전히 뒤편 견생역전을 목격하였습니다.

매우 활기차고 밝아지고 예뻐진 요다! 아빠와 엄마의 후광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하게 등장하여 개임에서 상품을 타내는 저력을 보여주며 예전의 주눅 든 모습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외롭고 힘들게 살아온 요다-. 앞으로는 든든한 리은 씨네 품안에서 때론 수줍게 때론 당당하게 잘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요다는 3개월
4개월과 6월 17일과 21일
21일과 25일은 요다의
25일과 28일과 31일



녀석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누구든 무릎 위로 척 올라앉아서는 '날 안 예뻐해 줄 셈이야?' 하고 말한다니까요!



김민은 씨 • 인터뷰

부서질 듯 깡말랐던 '요다'가 우리 식구가 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첫째 아이가 가까이 오기만 해도 으르렁거리더니 이내 타고난 체력과 깡으로 이기더라고요. 첫째 아이가 요다에게 움푹달싹 못해서 좀 알미웠는데, 요다 특유의 나긋한 성격으로— 특히 그윽한 눈맞춤!— 제 마음을 바로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녀석은 사람을 살~살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누구든 무릎 위로 척 올라앉아서는 '날 안 예뻐해 줄 셈이야?' 하고 말한다니까요!

저희 부부가 요다에게 훌쩍 빠져서 첫째 아이는 좀 못마땅한가 봐요. 그래도 첫째 아이의 분리불안증이 한 걸 나아진 걸 보면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것 같아 흐뭇합니다. 추운 날에는 고양이처럼 마냥 뒹어져 자기도 한답니다. ☺



공공장소에 외출할 때에는 목줄, 이름표, 배변봉투를 챙겨주세요.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무조건 집안에만 가두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신선한 공기와 따뜻한 햇볕이 있는 야외로 나가 운동을 하게 해주어야만 반려동물들의 심신이 건강해 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나갈 때나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을 해야 할 때에는 주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외출 준비는 어떻게 해주세요

개의 목줄이나 개 줄, 이름표를 꼭 달아주셔야 합니다. 이름표는 24시간 항상 달아주어야 하고 외출할 때는 더욱 신경 써서 착용하도록 합니다. 혹시라도 개를 밖에서 놓치거나 개가 놀라서 달아나게 될 때 되찾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방법입니다. 물론 배변 봉투와 휴지는 꼭 가져가도록 하세요.

외출에서 주의할 점

개 줄을 묶어서 안거나 주인 옆에 꼭 붙어서 걷도록 해주세요. 개 줄은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차량이나 다른 개들과의 싸움 등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개들은 대부분 길을 가다가 배변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반드시 준비해간 비닐봉투에 분비물을 수거해 오셔야 합니다. 분비물을 길에 방치하는 일은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게 되거나 공공 장소에 개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민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견 동반을 자제해야 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마트나 식당, 병원, 어린이 이용시설물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에는 개 등을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런 장소는 위생관리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개털 날림과 같은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많이 있거나 이용하는 곳에서는 몇몇 어린이들이 개를 무서워 해 개를 보고 당황해서 뛰어가기 도 합니다. 그럴 경우 개가 흥분하여 어린이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더욱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아 두세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외출을 할 때 개에게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으면 20만원,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았을 때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옆집에서 매일 개를 때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개를 때리는 게 또는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동물이라도 때리는 행위는 동물학대죄가 적용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7조에 의한 동물학대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4. 도구·악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5.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6.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7. 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학대 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학대 현장을 담은 사진이나 동영상, 경찰에 진술을 해줄 수 있는 목격자를 확보하는 일 등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경찰관들도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도 별다른 조치 없이 흐지부지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동물학대죄에 대해 모를 때에는 우리 단체로 연락을 하세요. 동물학대와 관련한 법률을 알리고 처벌을 촉구하여 드립니다. 동물학대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감시관이 출동하여 학대받는 동물을 피난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인에게서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오는 것이 아닌 임시피난 조치만 가능합니다.

만약 주인이 있는 다른 개를 학대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는 개의 주인이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물학대죄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같은 동물을 학대해도 주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셈이지요. 실제로 옆집 강아지를 둔기로 때려 뇌진탕으로 죽게 한 사람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판례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죄로 처벌된 경우가 극히 드물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동물학대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간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동물일지라도 귀중한 생명이며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



어린 야옹이들의 가족찾기 프로젝트

비슷한 시기에 겨우 눈만 뜬 채로 들어와 아기를 키우듯 한마음을 안겨주었던 어린 야옹이들- 품에 안아 분유를 먹이고 덕분에 피부병도 좋아 같이 알아가며 이제는 무럭무럭 커가는 기쁨을 안겨 주고 있는 세 아가들을 소개합니다.



임금계 병을 이겨냈어요

전 요다예요. 예쁘지는 않지만 할머니도 언니들도 요다라는 이름 대신 자주 못난이라고 불러요. 피부병으로 털이 다 빠졌지만 털만 나면 저도 한 인물이 될 텐데 말이죠. 하지만 못난이라고 부르는 언니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따뜻해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요.

제가 왜 못난이가 되었는지 사연을 소개할까 해요.

저와 제 형제들을 공원 귀퉁이에서 힘겹게 낳은 엄마는 며칠이 지나도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눈도 안보이고 배도 너무 고파서 사람들이 있는 벤치로 갔는데요. 사람들은 더럽고 무섭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찰 아저씨의 도움으로 동물자유연대로 오게 된 거예요. 우리를 처음 본 언니들은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었어요. 우주에서 온 괴물 같이라며 한숨을 푹푹 쉬셨지만 이내 깨끗한 수건으로 우리의 눈을 닦아주고 분유도 먹여주고 병원도 데리고 가 주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쇠약해져 있던 언니와 오빠들은 세상에 저만 남겨두고 먼저 여행을 떠났답니다. 저 요다예요. 깨끗하고 씩씩하게 언니와 오빠의 몫까지 열심히 살 거예요.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늘에서 언니와 오빠를 만나면 제가 만난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할 거예요. 그런데 그 따뜻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어쩌죠? 저를 두고 경쟁하시면 그것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제일 마음이 따뜻한 한 분만 나타나주세요! ^^



겉에 질린 눈망울로 들어왔지만 이제는 애교만점 공주가 되었습니다

전 애교만점 뽀뽀옹이. 언니들이 그렇게 불러요. 사실 귀찮을 때도 많지만 이렇게 애교를 떨어 주어야 언니들이 좋아하거든요. 예고, 예쁜 게 최죠! ^^

전 너무 예뻐서 길에서 놀던 꼬마 언니가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하지만 언니의 엄마는 당장 내버리라고 성화했고 언니는 눈물을 머금고 저를 깨끗이 씻겨서 다시 내다 놓으셨답니다. 그 사이 제 엄마는 어디론가 가버리셨어요. 저는 너무 무섭고 슬퍼 눈물이 났어요. 마침 그 옆을 지나던 어떤 언니가 수소문을 해 저를 동물자유연대라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처음엔 너무 두렵고 겁이 나



서 언니들을 쳐다보지도 못했지만 너무너무 잘해주는 정성이 가득하여 배 한번 뒤집어 보여줬더니 어찌나 호들갑을 떨면서 좋아하는지~.

흠,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는 법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특기를 십분 발휘하여 언니들의 기쁨조가 될 거예요. 그리고 곧 나타날 주인님께도 까짓것 좀 피곤하지만 오만가지 재롱으로 판타스틱한 쇼를 보여줄 예정이랍니다.

개봉박두! 기대하세요!



앞다리 허나게 불편하지만 척척하고 늠름해요

무서운 동네 고양이 아저씨가 저를 물고 해치려 했지만 고마운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저는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지요. 하지만 길에서 살던 때와 마찬가지로 갈 데가 없었어요. 저를 동네 세탁소에 맡기신 아주머니는 백방으로 저의 보금자리를 찾으려 다니셨지만 매번 허사였어요. 세탁소 누나는 매일 저를 내다 버린다고 협박을 하였고 다리를 다친 저는 움직일 수 없어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딱한 소식을 들은 동물자유연대에서 저를 데리고 가셨고요,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도 해주셨어요. 저는 성장판에 문제가 있구나 봐요. 앞다리가 좀 쭈시고 아프기는 해도 사는 데는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누나들이 또 저를 내다 버리실까봐 걱정이 조금 되어서 아직은 옆에 가는 것이 두려워 도망을 치지만 이젠 알 수 있어요. 누나들이 저를 많이 사랑하고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요.

누나들~! 앞으로는 잘 할게요. 그래야 새 주인님도 빨리 찾아주실 거니까요... ㄹ



야옹이 삼총사들의 이야기예요. 너무 착한 아이들입니다. 이 녀석들이 빨리 입양을 가서 그동안의 나쁜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아직 어릴 때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미의 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여운 아가들이예요. 이 야옹이 아가들에게 따뜻한 어미의 품이 되어주세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어요”



▶ 동물 구조단체 또는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서울시 각 구청에서는 동물구조관리협회나 동물병원 등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동물을 구조 또는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시청이나 구청의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로 찾아 가십시오. 그곳에서 관할 지역의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병원 혹은 지정 보호소 등을 문의하신 후 방문하도록 합니다. 시·구청과 연계된 보호소들은 동물보호법으로 정한 보호기간 10일 이후에는 안락사를 시킬 수 있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만약 찾는 동물이 그곳에도 없다면 전단지를 전달하고 부착하도록 부탁한 후 며칠 간격으로 다시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래는 서울시 각 구청의 유기동물 관리 담당부서와 연락처입니다.

No.	자치구별	담당부서명	전화번호	No.	자치구별	담당부서명	전화번호
1	종로구	지역경제과	731-0365~7	14	마포구	지역경제과	330-2360~4
2	중구	지역경제과	2260-1365~7	15	양천구	지역경제과	650-3365~9
3	용산구	지역경제과	710-3365~9	16	강서구	지역경제과	2600-6365~8
4	성동구	지역경제과	2290-7365~8	17	구로구	지역경제과	860-2365~7
5	광진구	지역경제과	450-1365~9	18	금천구	지역경제과	890-2365~7
6	동대문구	지역경제과	2127-4365~8	19	영등포구	지역경제과	670-3365~7
7	종각구	지역경제과	490-3365~9	20	동작구	지역경제과	820-1365~8
8	성북구	지역경제과	920-3365~7	21	관악구	지역경제과	880-3365~9
9	강북구	지역경제과	901-6365~7	22	서초구	산업환경과	570-6365~7
10	도봉구	산업환경과	901-5365~9	23	강남구	산업환경과	2104-1661~81
11	노원구	환경산업과	950-3370~3	24	송파구	환경산업과	410-3365~9
12	은평구	지역경제과	350-1365~9	25	강동구	도시경제과	480-1365~8
13	서대문구	산업환경과	330-1365~7				

※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해 주세요. 전국의 모든 지역을 조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서울지역만 조사하였습니다. 이해해주세요.

▶ 전단지를 배포합니다

전단지는 인쇄할 수 있는 큰 사이즈의 용지를 사용합니다. 내용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단지를 작성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령공주(모노노케 히메)

이수진 · 글



1997년 지브리 스튜디오가 제작한 원령공주(もののけ姫)는 미야자키 히야오(宮崎 駿) 감독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일본의 근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던 시기를 배경으로 인간과 신(자연)들의 싸움

을 통해 현대화, 산업화가 가져온 자연의 파괴와 그로 인해 결국 인간 스스로가 그 파괴의 영향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와 사회상을 투영하고 있다.

이 영화는 자연의 편에서 인간에 맞서는 여자가이 '산'과 마구잡이로 자연을 해치는 인간의 지도자 '에보시', 중립의 입장에서 둘 사이의 공존을 꾀하는 '아시타카' 등 세 영웅 중심으로 인간 세계와 대자연의 갈등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에노 날 주인공 '아시타카'의 일족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재앙신으로 변한 못대지가 불길하다. 축창의 아들인 아시타카는 자신이 저주로 죽을 것을 알면서도 마을을 지키기 위해 못대지의 모습을 한 재앙신을 살해한다. 본래 인간을 해치지 않는 온순한 신이 인간을 공격한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진 그는 우여곡절 끝에 생사를 주관하는 위대한 신 '시시가미(사슴신)'의 땅에 들어서고, 신과 함께 살아가는 모노노케 히메(원령공주) '산'을 만나게 된다.

모노노케 히메는 어려서 인간에게서 버림받고 늑대의 몸에서 자라 자연과 교감하며 자연을 보호하는 인간이다. 그녀는 자연을 파괴하고 신의 영지를 더럽히는 다른 인간들을 경멸한다. '아시타카'는 '산'이 가진 충음을 이해하면서도 그녀가 다른 인간들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 '에보시'는 철제조 마을의 리더로서 사람들에게는 무척이나 잘하지만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산의 나무들을 벌목하고 마구잡이로 자연을 파괴하여 저항하는 동물들과 자연신들을 총모로 죽였다. 인간의 총모에 맞은 자연신은 몸이 불타는 고통에 못 이겨 인간에 대한 한과 원망이 불이게 되어 재앙신으로 탈바꿈 하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신들의 결전의 날, 불노불사의 능력을 지닌 '시시가미'를 죽이고 그 영혼을 얻으려는 탐욕스런 '에보시'에게 '시시가미'의 목이 떨어지고 목을 잃은 '시시가미'의 분노로 숲과 모든 생명이 죽음의 저주로 뒤덮인다. 우여곡절 끝에 '아시타카'가 '시시가미'의 목을 찾아 돌려주고 목주하던 '시시가미'는 생명의 힘으로 숲에 생명을 부활시킨다. 숲은 안정을 되찾고 '아시타카'에 내린 죽음의 저주도 풀렸지만 '산'은 끝내 인간을 용서하지 못하고 숲에 남는다.

이 영화에서 인간인 '에보시'가 죽인 자연신이 결국 재앙신이 되어 다시 인간을 죽이는 것은 인간에게 화생된 자연의 피해는 결국 인간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자연의 인간에 대한 분노는 이상 기후와 자연재해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현대의 인류는 과거 10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그 대가로 매년 폭우나 폭설, 또는 한파나 폭염 등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노출되고 있다. 비단 기후 문제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멸종이 가속화 되고, 사막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치 '시시가미'의 분노에 노출된 숲과 같다. 그 분노를 풀기 위하여 인류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1. 작성된 전단지는 잃어버린 지역 일대의 벽이나 광고판, 전봇대 등에 붙입니다. 전단지는 곧바로 파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제대로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2. 인근 지역 일대의 동물병원이나 애견센터, 애견 마용실 등에도 전단지를 붙일 수 있도록 협조를 받으십시오. 또는 제보를 해주도록 요청합니다.

* 3. 신문배급소에 요청하여서 신문 간지로 전단지를 끼워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지역에서 가장 많이 구독하는 일간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 간지로 끼워 넣는 전단지의 효과가 높습니다. ☺

반려동물은 빨리 구조되지 못하고 길에서 헤매고 다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희망을 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찾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제목 : 개(고양이)를 찾습니다.
(큰 글씨로 사용합니다)



2. 동물의 사진 :

잃어버린 동물의 가장 비슷한 모습의 사진을 사용합니다

3. 몸종 :

외양상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라도 표기합니다

4. 잃어버린 날짜 및 장소

5. 연락처 표기

6. 사례비 표기 :

가능한 분량보다 더 높게 책정하여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7. 연락처 표기 :

가능한 곳에 이상의 연락처를 표기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개 농장

개 식용화 반대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개만 왜 특별하게 취급되어야 하는지는 비판이 있는데 개 식용화 반대의 가장 주된 목적은 인간의 동물 이용을 최소화 시키려는 데에 있다. 그에 더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은, 개가 인간의 생활권에 들어와서 인간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동물이라는 점이다. 그 밖에도 인간과 밀접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동물에게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비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당연한 인간 정서의 발현이다. 하지만 개를 둘러싸고 이어져온 이러한 소모적 논쟁을 넘어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하는 것은, 모든 동물을 도구적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것보다 청서적 바탕에 근거할지라도 동물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동물을 이용해온 인간에게 주어진 책무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①	
②	
③	

1. 말라뮤트

개 식용 산업을 조사하다보면 종종 발견되는 견종입니다. 말라뮤트 외에 시추와 코카스페니얼도 많이 발견된다. 모두 한때 방송에 의해 유행처럼 양육되었던 견종들입니다.

2. 집단 사육장에서 폐사한 누렁이들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을 떠나 모든 개 사육장은 공장식 축산업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급속히 확산되어 집단 폐사에 이르게 됩니다.

3. 도사 혼혈종

대개 식용으로 키우는 개들은 도사 혼혈종들입니다. 이 개들에게는 다른 혼혈개들에 비해 알맹 '체리아이' 또는 그 밖의 안구질환들이 자주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혼혈개들에 비해 눈 질환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은 아마도 유전적인 결함으로 보여집니다.

폭력을 기반으로 한 개 식용 산업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 한국동물복지협회 대표



©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서울시와 경기도가 개고기 위생 점검에 나서면서 우리 사회는 개고기 합법화 논쟁이 또다시 가열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견공들에게는 2008년 여름은 더욱 참혹한 시간들이었다. 두 지자체는 '많은 국민이 먹고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비릇된 식품위생 점검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명분은 현재로서 동물단체도 딱히 대응수를 내놓기 어렵다는 것

이 현실이다. 하지만 동물단체가 강력한 대응수를 내놓지 못하는 것은 '먹는 현실'에 순응해서가 아니라 동물에 대한 인식이 낮은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더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개가 도살되기까지 겪어야 할 잔혹성을 이해한다면 단순히 '먹는 현실'만 크게 부각될 수 없을 것이다.

동물자유연대에서는 돼지와 소, 닭들의 도축 현장들을 조사한 바 있다. 동물들은 죽을 직전에는 모두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사육 과정이 대부분 비인도적인 것이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 이렇듯 사육되는 일반적인 가축들을 조사하면서 개에 비교해 보아도 개가 식용으로 이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결론은 더욱 명확해졌다. 육자들은 개고기 합법화로 사육과 도살에 규제를 가함으로써 인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주장하지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소, 돼지, 닭 등의 모든 도축장은 폐쇄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개 도살 역시 폐쇄적인 공간에서 행해질 것이므로 규제는 형식일 뿐 개의 본성을 제압하기 위한 가혹 행위는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다.

잔혹한 전기 도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전기 도살을 일종의 안락사로 이해한다. 그러나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도 제시하는 전기를 이용한 도살법은 도살장에서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여 전기 충격을 가한 후 동물이 완전히 무의식이 된 상황에서 방혈(防血)을 함으로써 죽음에 이

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자동화된 시스템도 종종 비인도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현장 조사에 따르면 개 도살은 전기 충격이 가해진 후 곧바로 털을 뽑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그 과정은 불과 2~5분 정도 걸리며, 이처럼 단시간에 개가 완전히 죽음에 이르렀다고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개는 몸만 마비될 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극도의 공포를 경험하며 물속에서 질식사 하거나 털이 뽑히는 고통을 겪은 후 죽음에 이른다. 게다가 거의 대부분의 개들은 한 번의 전기 충격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전기 붐을 처음 가려하면 개의 몸이 일부 마비가 되지만 여전히 의식은 남아 있어서 두세 번 이상의 전기 충격이 가해져야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전기 기구의 상태가 불량한 도살장에서는 전기 충격을 받은 개가 의식을 잃기는커녕 오히려 전기 붐을 입으로 물어뜯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것은 전기 충격 후에도 즉시 죽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잔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인도적 대우가 불가능한 개 식용 산업화

개는 소, 돼지, 닭보다도 인간 생활의 영역에서 함께 살아온 세월이 훨씬 앞서 있다. 하지만 개들은 주인으로부터 살뜰한 보살핌을 받을수록 충직하고 다정한 성격이 발현되지만 인간과 정서적 교감을 나눌 기회가 차단된 채 비좁거나 몹시 짧은 줄에 묶어서 사육되는 개들일수록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늑대, 코요테 등을 조상으로 둔 개들의 이러한 본성이 개는 축산업으로 사육·관리될 수 없는 동물임을 결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개 농장 또는 도살장에서는 개를 좁은 공간의 뜰장 혹은 짧은 줄로 묶어서 사육했다. 비바람과 맹벌레 개가 방치되는 구조이며 개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개들이 무리지어 살며 사회성을 형성하는 기회도 차단당하고 인간에게 친밀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성도 억제된다. 이런 환경에 있는 개들일수록 공격성만 남는다. 도살장과 경매장에는 상처 입은 개들이 관찰되는데

이것은 낯선 무리들과 섞여 서로 싸우기 때문이다. 개를 옮기거나 다루는 과정에서 개들의 공격성을 제압하기 위해 밧줄로 목을 강하게 조이거나 기타 도구를 이용하는 등 가혹 행위가 행해진다. 개들을 운송할 때에는 좁은 철망에



© Korean Animal Welfare Association

여러 마리를 몰아넣어 몸을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운송 중 낯선 개들 사이의 싸움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공격성이 있는 동물일수록 다루는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가혹행위들이 가해진다. 이런 행위들은 생산성과도 연관이 있다. 공격적인 동물을 관리하는 방법이 높은 비용을 유발한다면 이는 곧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고 대량 축산이 추구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원칙은 동물의 인도적인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는 곧 개 식용화 산업이 잔혹성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도살의 법제화가 개에게 인도적인 대우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된다.

사회 인식의 재정립과 갈등 해소의 노력 필요

개 식용화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태도를 들여다보면 전통식문화로 인식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점잖지 못한 의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거나, 해묵은 논쟁으로 취급되어 논의 자체를 사양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개의 사육, 운송과 도살 과정에서 행해지는 폭력에 대해서까지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 산업화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가지면서 우리 사회가 개에 대한 가치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립해나가야 한다. 그와 더불어 개 식용산업과 반려동물 의식 사이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동반해야 할 것이다. ㉔

우리 사회의 어정쩡한 이중적 잣대

한 정 아 | 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

“이층에서 내려다보이는 이웃집은 동네 남자들의 필수 ‘마실’ 코스인 듯 늘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오 늘도 남자들은 오가고를 반복하고 어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을 즈음 그 집 마당에서 퐁 퐁 하는 뭉둥이질 소리와 난생 처음 들어본 너무도 끔찍한 개의 비명소리가 연속해서 들려온다. 그 끔찍한 비명소리에 현기증까지 느끼며 가까스로 창밖을 내려다봤더니 한 남자가 진땀개처럼 보이는 개에게 뭉둥이질을 하고 있고 다른 남자들은 그 옆에서 아무 느낌도 없는 얼굴로 맞아 쓰러져가는 개의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다.

“왜 개를 때려요! 그만하세요”라는 또 다른 이웃의 고함소리도 들려온다. 개는 죽은 듯이 그대로 포도 껍질로 옮겨졌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왔지만 남자들은 용케 거짓말을 둘러대 아무 일 없듯 상황을 모면한다.

난 옆집에 개가 살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을 정도로 지금까지 개들을 유심히 살펴본 적도 없지만 내 주위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을 알려온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당시의 불안함이 전하기 너무도 그대로 전해졌다. 세상은 변했다. 사람들의 의식이나 동물을 대하는 태도도 변하고 있다. 사람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로봇처럼 감정도 없고 고통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이전의 편견과 무지는 없어진 지 오래이고, 인간이 사용하는 말을 하지 못할 뿐이지 동물이 인간과 같이 감정과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도 오래 되었다.

이전에는 동물을 인간의 이용수단으로만 여기고 억압하며 학살해 왔지만 이제는 그들을 보호해야 하며 도덕적, 윤리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대부분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과 사회적 합의이자 수단인 동물보호법도 점차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왜 위와 같은 비참한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 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대우에 공감하면서도 식용을 방치하는 우리 사회의 어정쩡한 이중적 잣대로 인하여 동물들의 비극은 항상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를 개선할 방법은 무엇인가. 단계적으로 나아가자. 우선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명백히 불법화하여야 한다.

혹자는 이를 두고 개와 고양이만 보호하는 편협한 동물 사랑이라고 비꼬면서 소, 돼지 등과 같은 가축도 불쌍하기는 마찬가지이니깐 개까지 가축으로 지정해 먹어 치우자고 한다.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동물이 가축으로 지정되면 비록 인간을 위해 죽기는 하겠지만 편히 살다가 고통 없이 도살된다고 생각하고 개를 가축으로 지정하여 고통을 줄여주자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인간에 의해 가축'으로 지정되는 것이 얼마나 서글프고 비참하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 눈을 피하기 위해 가려져 왔던 진실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인간이 합법화한 가축은 그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기간 동안 소위 '공장식 축산'이라는 비참한 환경 속에서 '규격에 달하는 몸'으로 성장할 때까지의 짧은 생을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그리고 '상품'으로서의 가치만 인정되고 '생명'으로서의 존재가치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오히려 현재 지정 또는 이용되고 있는 가축의 종과 수를 서서히 줄여 나가야 한다. 하지만 이미 한번 고착화된 의식과 제도를 바꾸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래서 이토록 가여운 가축의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개도 가축으로 포함하자는 것은 매우 가혹하고 이기적인 발상인 것이다.

그리고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는 인간의 일상에서 늘 함께 부대끼고 교감하며 우리 생활의 일부분을 함께 하는 사회 구성체이다. 현재 반려동물은 법에서 별도로 그 지위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를 보호하기 규정하고 있어서 위의 사례처럼 주위에서 동물을 때리고 죽이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등 법 적용의 혼란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의식과 사회 분위기까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듯 늘 우리 옆에 있는 개를 먹기 위해서 죽이는 일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면 생명에 대한 시각과 인식은 더욱 가볍고 위협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생명 인식과 시각은 우리 인간에게도 바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식용불법화는 건전한 사회 분위기와 생명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동물에 대한 더 나은 보호와 배려를 향하는 첫발을 디디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제는 좀 더 전향적으로 현실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개 식용 불법화, 그것이 바로 첫 단계인 것이다. ㉞

개 식용화 반대 캠페인을 마치며

박진아 | 개 식용화 반대 캠페인 매니저

지난 7월 17일 왕십리역은 개 식용화 반대 캠페인을 시작하는 날과 장소였다. 캠페인은 개 식용화 반대 서명을 받으며 관련 사진 전시 및 동영상 상영, 그리고 개 식용화 반대 내용이 있는 부채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두 달여 동안 동물자유연대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부여받은 가장 큰 일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방학이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자원봉사 학생은 많지 않았고, 참여하겠다고 연락만 하고 안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캠페인을 처음 진행하는 나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와중에 부딪친 첫 번째 난관이었고, 시작과 동시에 지쳐갔다. 결국 사무실의 간사님들이 한 분씩 도와주러 나오셨고 그때부터 난 다시 시작해 보겠다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캠페인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보고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내 옆을 지나갔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붐비는 역사에서의 캠페인이었기 때문에 수십만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지만, 유독 캠페인을 진행하는 내내 가슴 뭉클하게 한 일이 7월 18일 왕십리역에서 일어났다.

지체부자유자 장애우 한 분이 왕십리역을 지나고 계셨다. 뇌성마비인 것 같았던 이 분은 거동이 불편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계셨다. 그날은 캠페인 장소 바로 앞인 역무실에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하겠다고 요청하고 우리의 캠페인 장소를 지나고 계셨다. 우연찮게 나는 이 분을 역무실로 안내해 드렸다. 그런 후 이 분은 역무실에서 나온 후 계속



전시된 사진들 주변을 맴돌고 계셨다. 한눈에 봐도 서명조차 하실 수 없는 분이셨기에 서명해 달란 말조차 그 분께 할 수 없었다. 그래도 계속 사진들을 보고 계셔서 함께 캠페인을 하고 있던 간사님 한 분이 그 분께 서명 용지를 가지고 가셨다. 서명 용지를 바라보시던 그 분은 볼펜을 받아 이름을 적으시려다 힘들다는 걸 깨닫고 볼펜을 다시 우리에게 건넸다. 다음 자신의 핸드백을 힘겹게 열었다. 그리고는 한참을 힘겹게 실랑이를 한 다음 자신의 복지카드를 꺼냈다. 이름과 성별, 주소와 주민번호가 적힌 그 복지카드를 건네시며 대신 서명을 해달라고 했다.

서명 하나 하나가 모두 소중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귀중한 서명을 꼽으라면 서슴지 않고 그분의 서명을 꼽을 것이다. 한낮의 햇빛이 너무 뜨거워 포기하고 싶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제대로 오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그 분 같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 지탱할 수 있게 해준 기억이 된 것

같았다.

나는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소개로 이 일을 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동물 복지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써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았다. 아마도 내 머릿속에 동물 복지라는 개념조차 없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던 중 왕십리역에서의 캠페인이 끝나고 시청역으로 옮겨왔을 때 다시 되짚어 보는 일을 겪었다.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영상을 틀어 놓고 그 영상을 보다가 '똥' 하고 가슴 한 곳이 내려앉는 듯한 것을 느꼈다. 누렁이 한 마리가 케이지에 갇힌 채 얼마 못가 모 시장에서 식용으로 팔려 도살가기 직전의 모습을 촬영해 편집한 장면이었다. 긴 시간 거의 구겨져듯 갇혀 있던 데다 다리조차 제대로 펴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누렁이는 끌려가는 내내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를 반복했다. 감중에 허덕이는 누렁이를 보다 못한 상인이 물 한 그릇을 앞에 놓아주자, 허겁지겁 그 물을 마시던 그 누렁이는 결국 도살되었다. 그 영상의 내레이션에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죽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는 내용이 녹음되었다. 그것을 멍하니 듣고 있으려니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울 것이 올라오면서 내 머릿속을 울리는 한마디가 있었다. "이 아이들을 살려야 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은 개 식용을 문화 또는 개인의 취향 차이라고 말한다. '중국에서는 제비집, 상어 지느러미, 원숭이의 뇌를 먹는 것처럼 서양에서 말고기나 양고기를 먹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것뿐이다' 라고 한다면 딱히 그 답을 찾지 못할 것 같았다. 하지만 못 먹고 없이 살던 시절, 어쩔 수 없어서 식용으로 개를 계속해서 먹는다는 것, 그리고 꺼져서 타 나이가 그것에 몸이 좋

아 먹는다는 것은 개를 식용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이들의 아이러니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원하던 원하지 않은 캠페인이 진행되는 내내 보게 된 사진과 영상, 그리고 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영상들을 본 후의 내 느낌은 '정장히 사육하는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도살되는 모습까지 더하자면 정말이지 먹을 것이 결코 못 되는 것이다. 사람도 독기를 품으면 귀신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육체가 얼마나 영양이 있고, 그 고통 속에서 갖는데 얼마나 먹는 사람에게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결국 먹으려고 하는 이들의 허울 좋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대부분 보약이라고 불리는 것들의 재료를 보면 식물들이다. 그렇게 몸이 좋은 것이라면 한의원 또는 병원에서 약용으로 만들 것이다. 참고로 개소주는 한약이 아니며 정식으로 한의사 자격증을 딴 한의원에서 달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건강원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일 뿐이다. 이 역시 약효가 입증된 것이 아닌 것이다. 캠페인은 한국의 그릇된 보신 문화에 대해 많은 반박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그릇된 보신 문화 탓에 희생되는 수백만 마리의 개들을 떠올려 보았다. 그 개들을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 묶어 도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깨닫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



튼튼한 채식버거 만들기

조지희 | 편집 디자이너

채식에 관한 글을 쓰려니까 사실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저는 완벽한 베지테리언이 아니기 때문이예요. 해산물과 우유, 약간의 계란을 가끔 먹습니다. 하지만 소, 돼지, 닭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멀리했습니다. 제가 육식을 하지 않게 된 것은 초등학교가 되기 전입니다. 시골 외가에 누렁 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 아주 순하고 귀여웠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의 털을 쓰다듬으며 들었던 생각이 동화책에서는 친구들인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였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기분이 아주 이상해졌어요. 물론 지금과 같은 개념이 전혀 없던 성장기엔 가공품으로 가끔 접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음식뿐 아니라 옷이나 신발, 가방 등도 동물을 이용해 만들어진 제품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음식은 채식버거입니다. 좋아하는 채소를 이용해 대충 만들어도 맛있고, 빵과 함께 먹으니까 든든해서 한 끼 식사로도 좋습니다. 



▲ 버섯, 호박, 셀러리, 당근, 양파, 브로콜리, 호두, 팽이버섯, 계란, 감자와 두부 등을 아주 약간씩 준비합니다. 저는 두부를 조금 넣었지만 대신 달지 않은 콘플레이크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감자와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사용합니다.



▲ 준비한 재료를 모두 잘게 다져 놓습니다. 아재는 물기를 제거한 후 한 반죽할 그릇에 모두 넣습니다. 다진 호두와 팽이버섯, 계란, 으갠 두부를 넣고 반죽을 합니다. 반죽으로 동그랗게 패티를 만들어 프라이팬에 구울 준비를 합니다.



▲ 패티는 구우면 약간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얇게 빚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올리브 오일로 두 번 구웠는데, 오일 대신 버터를 사용하면 고소해집니다.



◀ 버거에 발라줄 소스를 만듭니다. 케첩 반 컵에 간장 반스푼, 설탕과 소금 약간과 후추, 마늘, 레드 와인을 넣고 졸입니다. 졸일 때 버터나 오일을 조금 첨가하면 맛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말린 바질 가루와 올리브유를 더 첨가했습니다.



◀ 파전 완성입니다! 양상추 등 다른 야채들과 함께 빵에 끼워 드시면 됩니다. 저는 치즈를 한 장 더 넣어 먹었어요. 햄버거 빵 대신 식빵을 사용해도 좋아요.



풍세와의 아름다웠던 지하철 여행을 추억하며...



윤정임 | 동물자유연대 · 한국동물복지협회 선임간사

천안시 풍세면의
도자기 공장에서
동물자유연대 직
원의 눈에 띄어
서울 행당동으로

상경한 시츄견 풍세. 어릴 적 굴러 들어온 녀석을 진
돗개들과 함께 거두고 계셨는데 너무 사나워 제대로
만지지도 못했대요. 데리고 가도 되냐는 물음에 고
무장갑을 끼시고 물릴세라 목덜미를 짹째 낚아채어
꺼내주셨다고 하니 큰 진돗개들에게 왕왕대고 덤뵈다
는 게 거짓말은 아닌 듯하지만 행당동에 처음 왔을 때
의 순하고 슬픈 눈망울이 과연? 이라는 의문을 갖게
했던 풍세. 지금은 좋은 곳에 입양되어 천재견이라는
별명을 달았지만 우리 단체에 있을 때 별명은 '똥
똥' 세' 였답니다. 이 녀석이 이런 별명을 얻게 된 사연을
얘기해 드릴게요.

심장사상충에 감염이 되었던 풍세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데리고 다녀오던 중 지저분했지만 이제는 추
억이 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답니다.

처음 지하철을 타고 병원을 가던 날, 버버리 가방 안
에 넣어서 출발을 하였는데 미친 듯이 울부짖고 쿵어
대는 것이 애처로워 오픈 가방에 실은 것이 화근이었
어요. 계속 가방 안에서 기어 나와 어깨를 타고 올라
와 머리 위로 기어오르는 놈을 옆구리에 끼고 개찰구
를 통과하려는 찰나 "어머! 재 똥 싸놔봐!!" "에구 똥
새!!"라는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 돌아보니 옆구리
에 매달린 채로 3년 째밥의 무르고 거대한 똥들을 지
나간 발자국 남기듯이 툭툭 떨어
뜨리고 있었어요.

몸집도 작은 녀석이 어찌나



많이 싸냈는지... 정신없이 뒤처리하면서 머릿속에는
'개똥녀2로 낙인 찍혀 전국에 얼굴이 알려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도 들더군요. 그 후로는 암전히 있어
서 병원에서 약을 받고 돌아오면서 안도를 느낀 것도
잠시,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올 때는 무조건 버버리 가방에 넣어서
오는데 웬일로 잠잠하여 가방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
에 온통 똥칠을 한 채로 그건 발기 싫은지 다리 한 짝
을 들고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더군요. 아직 갈 길
이 멀어서 그대로 둘 수 없어 환승역에 내려 갈 때 넣
었던 오픈 가방에 옮기려고 꺼내다가 그만 똥을 밟고
미끄러진 풍세. 온몸에 똥칠을 하고 피날레를 하면서
저에게 매달리니 제 옷은 온통 풍세의 아름다운 흔적
들로 얼룩이 졌지요. 예라, 모르겠다! 대충 닦아서 오
른 가방에 옮겨 실었는데 이번엔 한강 같은 오줌을 밟
사하고는 또 그건 발기 싫은지 이리저리 다리를 옮기
기에 바빴던 풍세. 어깨에 댄 가방에선 오줌 냄새가
술술~ 밑에 둔 버버리 가방에선 똥 냄새가 물물~ 그
새 말라서 붙어있는 옷에서도 냄새가 모락모락~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에서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달아
오르는데 이 녀석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좋다고 방방
뛰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할지 머릿
속은 백지처럼 하얗게 되었어요.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없는 시간대라 어찌어찌 무사히 탈출해서 돌아왔지만
현동안 잊히지 않는 구수한 추억이 되었답니다.

현재의 천재견 풍세가 있기 전에는 이러한 아름다운
전설이 내려오고 있으니 후세에 길이길이 남
을 똥풍세와의 판타스틱한 지하철 여행기
랍니다~ ☺

이것이 풍세와 애견인과
함께 느낀 지하철
여행입니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교육

7월 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위원교육이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실험운영기관 및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교육이었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도 교수님, 회원님, 수의사 등 각계각층의 회원들 2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대표님도 강의 연자로 초청되어 동물보호단체에서의 동물 보호에 대한 관점과 실험동물복지에 관한 열띤 강연을 펼쳐셨습니다.

■ 실험동물반대 퍼포먼스

7월 17일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동물실험기관들에 양심적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실험동물의 고통 체험 퍼포먼스를 하였습니다. 2007년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해 각 실험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외부위원 1인을 추천받아야 하는데, 실험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위원을 선정한 후 동물보호단체에게 추천서 발가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 실험기관과 동물보호단체 간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저해를 가져오는 것이며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 책임 있는 기관들조차 윤리위원회 설치에 소극적으로 임한다거나 외부위원을 자체적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의 도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되도록 동물자유연대는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개식용반대 지하철 캠페인

해마다 여름에 하고 있는 개식용반대 캠페인이 올해도 이어나갔습니다. 7~8월 매주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캠페인이 진행되

었습니다. 캠페인은 유기견과 식용으로 판매되는 개들의 잔혹한 현실을 담은 사진전과 동영상 상영을 하며, 개식용반대 서명도 받았습니다. 역사를 지나는 많은 분들이 사진과 영상에 관심을 보였고 생각 외에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셔서 힘을 내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복날 개식용반대 퍼포먼스

중복인 7월 29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개 도살 중단을 호소하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학대방지연합의 회원들이 개의 영혼을 의미하는 가장복을 입고 개들의 고통을 전신에 흘리는 피로 표현하여 개 도살 중단을 호소하였습니다. 한편 이 행사에서는 시민들에게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데 필요한 부채와 수박을 나누어 주는 등의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말복인 8월 7일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폭력적이고 잔인한 '개 도살'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와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성남 모란시장 등지에서 촬영한 개



사육 현장을 담은 사진전과 함께, 개 분장을 하고 천사 앞에서 생명을 구하는 내용을 담은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날의 퍼포먼스 모습들은 YT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복에는 명동에서 행사를 기획하였으나 비로 인해 아쉽게 취소되었습니다.

■ 개식용 금지포럼 '다름노' 탄생



동물자유연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개 도살을 종식하고 개는 먹는 것이 아닌 반려동물임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개 식용화 금지 전용 홈페이지 개식용금지포럼 '다름노'를 오픈했습니다. '다름노'는 개는 예견과 식용이 따로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뜻으로 '다름'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름노'는 반려동물인 개를 식품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당성을 논하고, 우리나라의 개 식용화의 실태를 더 많이 알려서 개 도살을 종식시키기 위한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름노에서는 여러분들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름노를 방문해 개 도살 금지에 서명도 하고 평생 개를 먹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을 해주세요! (www.savedogs.or.kr)

■ 개고기 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 발간



서울, 경기, 전라, 제주도 등의 지역에 분포한 개 사육장과 도살장 현장 조사를 토대로 '개 도살 및 유통 실태조사 보고서'를 7월에 출판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소, 돼지, 닭 등의 도축장을 조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 도살의 잔혹성과 개가 가족으로 적합한 이유 등을 보고서에서 설명하였습니다.

■ 행당동 아이들 매스컴 타다!

〈보그〉 8월호 별책부록으로 우리나라 유명인의 반려동물 사진들이 실린 'FASHION PAT'과 함께 행당동 아

이들이 모두 소개되었습니다. 유기견과 유기묘들에게 세상의 관심을 기울이게 하려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록에 실린 나를 팔자 좋은 반려동물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더 비참한 환경에 놓인 내 석들에 비하면 행복하다 할 수도 있을까요? 하지만 이 잡지를 본 많은 분들이 우리 단체에 입양 문의를 하셔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고, 어리고, 품종 있는 아이들을 찾으셔서 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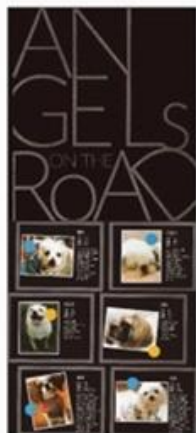
■ 호주의 살아있는 동물 운송 반대를 위한 서신 보내기 운동

살아있는 동물의 대량 운송에 반대하는 'Handle with care' 글로벌 캠페인에 동물자유연대가 동참하였습니다. 지난 2007년만 해도 약 35,000마리의 양과 수백마리의 소가 운송 도중에 극도로 열악한 환경과 스트레스로 배 위에서 죽었습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세계적으로 주요한 축산물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의 한국 대사관에 동물 운송 반대를 위한 서신 보내기 운동과 함께 단체의 공식적인 항의서한을 호주대사관에 보냈습니다.



■ 개식용 거래 실태 조사

동물자유연대는 개고기 시장 현장의 잔인한 사육과 도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 대도시 성남, 대한민국 최대의 민속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란 시장은 우리나라 최대의 개 도살 현장입니다. 이곳을 조사하며 식용과 반려동물이라는 이중 잣대에 의해 참혹하게 희생되는 동물들을 보며 과연 인간은 어떠한 권리로 귀한 생명을 이렇게 희생시키는 것인지, 애처로운 눈동자로 바라본 동물들, 당장은 어찌 해줄 수 없는 현실 등은 초보 동물운동가에게 너무나 많은 고민을 안겨준 조사였습니다.



포도
회갑당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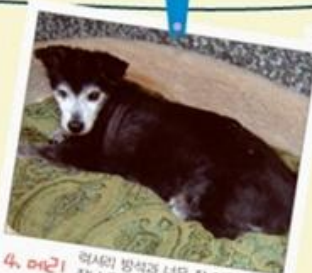
1. 사랑이 나 손 들어 보내왔던 마음으로 회갑당 사람이기 되어 보내달라고 사위하고 있다~



2. 막대기 식신 약당의 특징은 귀 뒤집기~



3. 에비니 알레르기기가 있는 에비에게 강경희 회원님의 안-이신 경아 씨가 해준 100% 순은 액세서리 선물해주고~



4. 에리 액세서리 장식과 너무 잘 어울리는 장님 공주 에리~ 누군가가 다가 가면 바로 움직입니다~



5. 김승수 반려동물과 함께 한 연예인들의 사진전에서 만난 소식지 청강호를 안고 있는 건승 씨~



6. 줄리 새상 밥이 늘 궁금한 줄리~ 영영이를 쏙 빼는 핏웃슴은 어찌나 우스웁스리운지~



7. 줘디 유모 패션의 줘디~ 울...! 힘든 휴일의 나른한 메이드 이름마 칼기도 하세요.



8. 뽕씨 현재 생세는 법 세는 손. 없애 오면 다 밀려줄 테다 단단히 비벼고 있습니다~



9. 냥이들 너희를 연애하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음~



10. 항당호텔

항당호텔에 오시면 온 온에 개들이 갖는 파릇한 감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윤정임 권씨(동물자유연대 · 한국동물복지협회 선임권씨)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동물자유연대의 반려동물복지팀을 맡고 있는 일명 윤간사입니다.

출근하자마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언제라도 아이들과 땀글 만반의 준비를 한 뒤 하루를 시작하죠. 제가 없을 때 제 작업복을 보며 물어댄다는 충성스런 견공들의 일화도 있답니다! 가끔 쥐도 새도 모르게 다가와 앉아 있는 저의 등쪽에 사랑의 징표를 남기고 가는 파렴치한 놈들도 있지만 아이들의 퐁 냄새, 오줌 냄새가 싫지 않은 것이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이 참으로 소중한다고 느낍니다. 사무실의 아이들은 학대의 현장이나 유기된 채 떠돌아다니다 들어온 녀석들입니다. 이들의 몸도 마음도 깨끗이 치유되어 비록 작은 울타리지만 하나하나 새 가정을 찾아가고 또다시 가여운 생명들에게 품을 내어줄 수 있는 소중한 여유에 참으로 감사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종종 불지각한 애견인의 비도덕적인 상담 전화에 머리가 아파오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동물단체가 봉인양 무조건 해달라고만 하는 안하무인을 만나도, 개념을 상실한 막강 신입견 때문에 임무가 마비되어도, 잦은 외근으로 심신이 지쳐도 해맑은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소리 한번 댄~ 지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답니다. 뭐, 가끔은 아주 늦게 돌아올 때도 있지만요. 반려동물들의 복지가 낙후된 우리나라에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여 동물에 대한 인식 제고와 처우의 개선을 위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지만 현재의 열악한 환경과 시민들의 무관심은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곤 외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뼈저리게 아픈 고통의 시간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슴에 있는 희망과 미래 '연젠'가는 우리도...'라는 꿈을 품습니다. 이 꿈은 실현 불가능의 것이 절대 아니니까요.

또한 동물자유연대를 믿어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회원님들의 성원과 기대는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아주는 저의 종교와도 같습니다. 아작은 넓은 물에서 망껏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없지만 이 작은 물줄기들이 하나로 합쳐져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신나게 뛰놀 그날을 꿈꾸며 지치지 않겠습니다.

편집후기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창간호를 많이 칭찬해 주셔서 뿌듯한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라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의 압박도 많았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여 계속 수정하고 첨가하다보니 여름이 다 지난 9월애야 여름호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기획 연재되는 '고양이 TNR 정책'의 자료 조사가 미흡하여 이번 호에는 실지 못하게 되어 더욱 아쉽고 죄송하네요. 타이틀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성격의 글이 많다는 것도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불만입니다. 내용을 좀 더 다양하고 알차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귀찮 좀 해주세요!

여름호인지라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인 개식용 문제가 많이 다루어져서 준비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 책이 우리 사회가 동물에 대한 시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책을 위하여 물심양면 도와주신 많은 분들, 특히 조지희님, 이정애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팀인 거지요? 두 분은 이제 저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후원하주세요

동물들은 이 지구상에서 인간과 함께 공존하며 자연의 어우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들은 인간 삶의 질에 다양한 형태로 기여하기도 하고, 많은 수의 동물들이 인간을 위해, 인간에 의해 희생되기도 합니다. 정서가 메마른 현대 사회에서는 인생의 동반자로, 인간의 식생활과 생활용품, 오락, 의학, 과학 개발의 현장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곳에서 동물들이 이용되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동물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때론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합리화되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에는 무관심했던 것은 아닌지, 인간은 동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 의무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사회, 고통을 호소하며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지길 원하는 동물들의 절규, 끝 간데 없는 동물 이용. 우리는 동물의 고통에 무관심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충만한 가치 사회를 구현해나가는 일, 여러분들의 동참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부당한 처우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항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위해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동물자유연대·(사)한국동물복지협회의 후원인이 되어 주십시오.

후원 방법

- 이 면을 작성하여 절취하신 후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 <http://animals.or.kr>로 접속하셔서 정회원에 가입하시면 후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전화 02-2292-6337, 팩스번호 02-2292-6339 (전송 후 확인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이름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휴대폰 _____

주소 _____ 전 화 (집/회사) _____

자동이체계좌번호 _____ 은행명 _____ 예금주 _____

* 예금주와 후원인이 동일인이 아닐 경우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기재 _____

후원금액 _____ 자동이체 날짜 _____ 5일 ☐ 14일 ☐ 23일 ☐ (확인 요망)

* 우리단체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소독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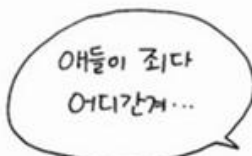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마고애미 입니다.
고양이 6마리와
알콩달콩 지낸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털이 많은 녀석들은
여름 보내기가
여간 힘들게 아입니다



하지만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공기가
느껴지는군요...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세요
주변 소외된 생명들에게
따뜻한 맘을 전해주는
여러분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고애미♡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몫을 빼앗아 동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닌,
 소외된 약자에 대한 분배의 자비심입니다.

함께 나누는 삶

발행일 2008년 9월 20일 발행인 조희경 편집진 행 손해원 교정·교열 이정애 일러스트 이은영
 발행처 동물자유연대·(사)한국동물복지협회 서울 성동구 형당동 307-18 T 02-2292-6337 F 02-2292-6339
 기간지 / 2008. 여름호 www.animals.or.kr 디자인·제작 동방기획(02-2277-0365)